

임채영 목사의 참 믿음의 여정

4강 온전함의 열쇠(1) : 긍휼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 수신자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디아스포라(διασπορά)'입니다. 즉 '흩어진 씨앗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땅에 뿌려진 씨앗들처럼 세상 가운데 뿌려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날을 기다리며, 온갖 시험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온전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실천입니다.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실천을 통하여 온전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경건이고, 신앙생활입니다. 2장부터 야고보는 그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말의 통제, 긍휼의 행함, 그리고 세속으로부터의 정결입니다. 이 중에서 야고보는 긍휼의 문제를 먼저 다루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 <차별>을 들고나옵니다.

1. 차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잘 보세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라고 설명합니다. 즉,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도덕이나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영광의 주'라고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세스(δόξη)'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뭐가 되셨냐 하면 낮고 천한 인간으로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자기 비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 그리고 가장 큰 죄인이 되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게 된 근거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지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지요. 정리해 보면 '영광의 주님이 가장 낮아지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의 은혜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아무 자랑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 이 겸손, 이것이 기독교적 인간 이해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무자격한 존재, 값을 수 없는 큰사랑을 받은 존재, 오직 사랑받음 속에 자기 가치가 확보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각으로 우리는 다른 인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너희가 어떻게 차별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그럴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아마도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야고보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 당시는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이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형제라는 사실이 그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외모만 보았기에 그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는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지요. 거기에서 비로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외모만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기에, 다 생생하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무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 이 '차별'이 '차별이 없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2,3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 차별의 예를 듭니다. 여기에서 회당이란 초대교회에서 사용되던 정기적인 모임을 나타내는 말로써, 유대인의 회당과는 구분됩니다. 신자들이 모일 때에, 어떤 알들이 있었는가 하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먼저, 부유하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남루하고 초라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부자를 묘사하는 것이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입니다. 금가락지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상류계급의 사람들이 도장과 같이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반지 위에는 비둘기나 달과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결제하거나 중요한 문서에 날인하는 결제도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옷'은 당시의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이 입고 있던 옷과 같은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은 그 당시의 상류사회의 상징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눈여겨봤다가, 좋은 자리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에 앉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발등상이라는 말은 '의자에 달린 발판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아닌 곳에 앉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당시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로마인과 비로마인, 헬라인과 야만인,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귀족과 평민, 남자와 여자, 수없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별은 그 당시 가치관으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차별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당시 이런 차별을 초월해서 함께 모이는 유일한 장소가 오직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역사에서 가장 깊은 차별은 유대인들에게

서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역사가 요셉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과 성전 구내를 나누는 곳에는 높은 벽이 있었고 거기에는 또 한 성전구내에 침입하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뿌리 깊은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졌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차별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3. 차별의 이유는 욕심으로 나누어진 두 마음입니다.(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차별을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차별이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차별을 악한 생각이라고 하면서, 문제는 그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차별'이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판단하는'는 말의 헬라어는 '디아크리노(διακρίνω)'입니다. 약 1:6에 나왔던 단어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에서 '의심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디아'(사이에)와 '크리노'(분리시키다)의 합성어로서 어떤 문제에 대해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욕심으로 나누어진 두 마음...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처럼 된 타락한 인간을 말합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자기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어 자기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정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서도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즉, 자유인과 노예들,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 존재했던 차별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흠어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기준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기준을 소개합니다....5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습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향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니예요. 우리가 보통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열 손가락 깨물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어떤 손가락일까요? 상처가 있는 손가락이에요. 앓고 있는 손가락은 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와같이

못난 자식, 아픈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 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모든 면에서 똑같이 대해 주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사는 사람 편을 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4. 이 '두 마음'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6, 7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자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 샴들이 아니냐?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현실을 보면, 소수의 지주들과 부자들의 농간이 심했습니다. 그들은 부의 확장을 위하여 땅을 사들였고, 먹고 살기에 막막했던 어려웠던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땅들을 팔고, 소작인으로 전락했어요. 소작은 쉽나요? 불평등한 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었고요, 자연히 약속한 양을 내지 못하니깐 온갖 협박과 심지어는 법적인 소송까지 했습니다. 법정에 가면 당연히 돈과 권력을 가진 부자들에게 유리한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들과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노예로 팔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이름'이란 그 당시 신자들을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로서 예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희가 그런 꼴로 살게 하겠느냐? 나는 예수믿지 않아도 너희보다 더 잘살고 있다' 이렇게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부자들과는 다른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기도 했습니다. 주안에서 노예나 주인이나 한 형제였으며,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그들에게 눈엣가시였을 겁니다.

5. 차별하지 않으려면, '최고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야 합니다.(8,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이거니와/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기에서 야고보는 좀 더 근원적인 것을 지적합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정작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엄마가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만 하는 아들에게 '컴퓨터 그만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알겠어요' 그러고는 컴퓨터를 끄고 이번에는 텔레비전을 봐요. 그럼 엄마가 만족할까요? 이번에는 '텔레비전 그만 봐라' 그랬더니 아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텔레비전을 끄고는 이제 게임을 시작해요. 자, 그럼 엄마는 만족할까요? 엄마의 진정한 뜻은 뭐지요? 그래요 '공부해라' 이거였어요. 지금 야고보가 이런 심정입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정작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웃을 네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야고보는 이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법이란 왕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면 다른 모든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율법을 정리해 보면 613가지라고 합니다. 이 중에 '하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 총 613개가 있습니다. 다 지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개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런데 10가지도 많아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따라 살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차별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온전한 방법입니다.

12절을 보세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 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 구문이 있어요. 뒷부분에 나오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를 보면, 이 두 동사 앞에 각각 '그렇게(후토스)라는 부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부사를 넣어서 읽으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유'의 율법'이란 8절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법'과 통합합니다. 단순히 차별만 안 하면 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자유의 율법, 즉 '최고의 법'을 실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6. 적극적으로 긍휼을 행함으로 차별은 극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결국은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긍휼을 행하라고 합니다.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긍휼이란,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가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하고 비슷한 단어가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

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공화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공화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화로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성육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화를 행하는 길은 무엇보다 먼저 방향이 낮은 곳을 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화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데서 약한 곳으로 흐르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 되고 타락한 세상에는 그 흐름이 반대가 됩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고, 약한 데서 강한 데로 흐릅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의 흐름,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의 흐름은 건강치 못한 죽음의 흐름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흐름, 강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흐름이 건강한 생명의 흐름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 흐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그 힘이 무엇이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오순절 날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자 저들의 인생관과 삶의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마음과 물질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서로 유무상통 하였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에게서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로 흐름이 그것도 아주 강력한 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흐름이 일어난 세상은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